

<주요 개념> : 구술된 경험, 생애사, 주제성, 서사적 진실, 제주 4·3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 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1)

유철인(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2001년 현재 일흔일곱 살이던 강정순 할머니는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에 살고 있다.²⁾ 1925년 안덕면 동광리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1948년 4월 3일에 발발한 제주 4·3 사건의 와중인 1948년 12월 28일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 형의 언도를 받고 10개월간 복역생활을 하였다.

2001년 11월 21일 강정순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최근에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부터 하였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작년 한해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아예 앉아보지도 못했고… 이 귀도 갑자기 안 들려서 보청기를 했는데, 한 쪽만 할 걸. 전에 안 들린 쪽 (오른쪽 귀를 가리키며) 이쪽은 그때 4·3에 귀를 때려버려서. 이쪽은 전혀 안 들려서, (왼쪽 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들었는데, [왼쪽 귀도] 갑자기 안 들립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20만원 쥐서 양쪽을 다 [보청기를] 했는데도, 한쪽은 아예 들리지 않고. 귀가 안 들려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들이 와서 보청기를 선뜻 사줘서 지금은 조금씩 [왼쪽 귀는] 들을 수 있습니다.”³⁾

보청기에 대한 이야기 끝에 할머니는 아들 자랑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나를 불구자로 생각해서 맘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바빠서, 무슨 교감인지 승진이 되어 바빠서 [나한테] 자꾸 다녀가지 못해. 이제 마흔여덟인데, 올해 승진해서 하원국민학교. 떠느리는 도순[국민학교]로 가고, 내가 스물다섯에 이곳(시집)에 와서 고생하면서 낳은 애기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할머니의 나이를 묻자, “일흔, 원래 나이로는 일흔일곱”이라고 대답하였다.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냐고 재차 묻자, “호적 나이는 모르겠다, 아, 주민등록에 나왔지요”라고 말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강정순 할머니는 주민등록증을 꺼내주면서 “원 나이로 스물다섯일 겁니다”라고 4·3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1. 생애사 텍스트

1) 스물다섯에 4·3 사건이 일어나다

스물다섯에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음력] 시월 보름날(양력 11월 15일)에 아래쪽에서 군인들이 올라와서 [마을사람들을] “팡팡” 그냥 죽여 가니까… 군인들이 와서 [마을사람들이] 모이면 한마디 한다고 하니깐 늙은 어른들이며 아버지네며 모두 아홉 명이 모였는데… 우리 친정아버지는 소를 살피고 오다가 길 아래쪽 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앉아 공회를 하니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내려가던지 어떻게 하자” 하면서 앉아있었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어떡해서 오지 않는가 하고 있는데, 어떤 군인이 슬그머니 와서, (허리춤을 건드리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나오지 말라고 귀땀을 해주데. 나오면 큰일 난다고.

조금 있으니까, 총소리가 “팡팡” 났지. 조금 후에 나와 보니까 아홉 사람을 죽여부렸어.

한 명은 길 위에서 죽고, 여덟 명이, 순경 아버지까지 여덟 명이 이렇게 줄을 서니까, 아무 말 없이 총을 “팡팡” 쏘았다는 거야. 그때는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여기(동광리)에서 살다가는 죽어 살지 못하겠구나. 그냥 옆쪽 밭에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서 흙 덮어두고, 우리 친정아버지, 강신학. 열엿새날에 그냥 마을을 나왔지. 묻지도 못하고, 그냥 흙만 뿌려놓고 내려왔지. 우리 성님(언니)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리 성님네 딸 두 명하고, 우리 작은 어멍(아버지의 첩)이 난 딸하고. 이제 갈 데가 있겠어? 동흥이라고 하는데 내려왔지. 거기 굴이 있으니까. 굴에서 하루 저녁 살고, 뒷날 아침에 여기서도 살지 못하고, 아래로도 못 내려가고 하면 어떡하나, 하고 [서광리까지] 내려왔지.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서광리)는 막 “소까이”(‘소개’라는 말의 일본어) 하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다들 내려가고 있네. 그래 올라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지. “다들 내려갑니다, 우리만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갑자기 확 내려갔지. 그 길로 화순으로 내려갔지. 시어머니네랑 같이 내려갔지. 시어머니가 사둔(친정어머니) 따라가지 말고 우리랑 살게 하니까, 난 시어머니랑 가고, 우리 어머니는 덕수[리]가 친정이니까 덕수로 가고. [덕수에] 언니 식구, 딸(이복동생)도 하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애기(아들)를 못 나니까, [작은] 어멍 데려다가 다섯 살 난 계집아이 하나 [낳았지].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도 걸지 못하는 어르이라, 집에 불 붙여버리니까 [작은 어머니도] 그냥 불붙을 건데. 바깥으로 꺼내서 그냥 이불을 씌워 묻었지.

시어머니네도 모든 식구가. [내 남편 말고] 아들도 하나, 딸도 셋 모두 내려가서 화순에 가서 살았지. 화순에서 다시 따로 스물아홉 명을 모아서 모두 죽여 버렸지. 그때 우리 시누이 남편도 죽어서 영장하고(장사를 지내고)… 시어머니가 “사위 죽었으니 어떡하느냐, 어떡하느냐” 하다가, “여기서 살다가는 다시 죽겠다, 우리 [제주]시에 가게, 아들(당시 경찰)한테 가면 이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 시에 가자고 했지. [그러나 우리끼리는] 그냥 가지 못하니까… 동광 사람 순경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죽은 날 같이 죽었지. 그 어멍네도 [화순으로] 내려왔지. [화순에서 스물아홉 명이 죽은 후] 며칠 있다가, 그 [순경] 아들이 데리러 왔어. 그래 같이 시에 갔지.

시에 가서 그 고생을 했어.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여기는 그렇게 연락도 잘 안되고, 전화도 그렇게 없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몇 달만 살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이장되는 사람이 산사람(무장대)인 걸 몰랐어. 그때는 구장이라 했지. 이장 아니고, 구장, 구장 했는데. 구장 되는 사람이 아래(면소재지인 화순리)에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로 내려가라는] 공문이 와도 딱 물어 버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다 여기(서광리) 내려와 보니, [내려가는 길을] 딱 사흘을 터췌어, 순경들이 목마다 서고. 그래 사람들이 막 내려가니까, 그 바람에 내려갔지. [구장이] 산사람과 함께 노력하며 산 걸 몰랐지.

내려간 사람은 그래도 살고, 위에 있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어디에 무슨 굴이며, 어디며 모두 죽여 버렸어. 웃드르 마을(중산간 마을)은 다 그랬지. 저 김녕 어디에는 더 많이 죽었던데, 텔레비 보니까. 여긴 그래도 덜 죽은 편이지.

2) 진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

신랑 따라 [제주]시에 간다고 갔지. 서방네 집에 가서 살았지, 남의 집 빌어 사는 데. 그때

엔 아기 아버지는 없고, 조천에 갔다고 합디다. 시앗(첩) 말이 조천에 있다고 하니까 조천에 있었을테주. [첩이] 아기도 낳고 사는 곳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들 셋하고, 시동생하고 살았는데… 큰 시누이는 시집갔는데, 화순에서 신랑이 죽어버렸으니까 같이 갔고. 셋 시누이(둘째 시누이)하고, 작은 시누이(셋째 시누이)하고.

그래서 가서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날 순경이 와서 데려가. 아무래도 동짓달 초순에 잡혀갔을 겁니다. [경찰이 잡아 가둔 곳] 어디인지 몰라. 넓은 집이었는데, 어디라고 말도 해주지 않고. 그때 제주시가 어디 어디인지도 모를 때에 들어갔으니까. 잡아가니까 왜 잡아갈까, 생각은 했어도 이유가 있으니까 잡아가겠거니 했는데… 말이나 물어보고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잡아갔는데. 취조할 때에 난,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래도 죄가 있지?” “난 죄 없습니다” 했지. 그러니까 “이년, 서방 죽이려고 산에 올라간 년을 그냥 놔둘 수가 있냐”고. 서방 죽이려고 올라가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와 가만히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때린 거지. 바른말만 하래니, 뭐, 하지 않은 걸 무슨 말을 해? 난 무슨 바른말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했지.

그래도 바른말만 하라고 취조하니까, [나를] 매달아 때리다가 지치면 내려놓고, 내려놓고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취조 받고. 하루, 하루 몇 시간, 한 다섯 시간을 받았을 걸. (양팔을 등 뒤로 각지 끼우는 자세를 하면서) 이렇게 달아매서. 이렇게 달아맨 뒤 밑에서 의자를 탁 빼어버리면 달아매지. 한 다섯 번은 했을 거야. 막 때리기만 해. 궁둥이며 척추 쪽으로. 그래서 아직도 잘 걷지 못하지. 지금도 아픈데, (어깨를 만지면서) 여기가 주로 아파. 조금만 일을 해도 이쪽이 막 뻥기지.

[내가] 신랑을 죽이려고 산에 올라갔다고 하면서, 그 명분으로 때린 거지. 남편은 순경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남편 죽이려고, 올라갔다.” 그런데 나는 산에 올라간 역사도 없고, 없었지. 그보다 더하여 산에 가서 살던 사람도 아무 일 없었는데, 가만히 시부모(시어머니) 모시고 살던 사람을… 산사람(무장대)한테 술이나 한 잔 주었나, 쌀이나 한 되 주었나, 준 역사가 없는데. 산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 산(중산간 마을)에 살았다 해도, 산사람들이 무슨 몽이나 부린다고 오라 가라 한다고도 하지만… 난 아무런 일도 안했는데…

그렇게 사흘을 사니까 풀어줬지.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지. 나와서 시어머니 집에 가는데, 달리 갈 데가 있습니까, 그곳에 갈 수밖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막 울어. “나 너 [제주시에] 데려왔다, 망가졌다, 망가졌다.”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랑 울며. “아이고, 화순서 너 어머니랑 살게 내버려둘 걸, 나 너를 여기 데려왔다 너 병신 만들고.”

집에 오니까, 나는 이젠 잡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 어디 밭에 가 고구마라도 주어가 삶아먹고 했지. [집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어휴, 또 삼일 만에 다시 와서 데려가. 어둑어둑 할 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니 또 잡아가. 다시 데려가서는 말도 묻지 않고. 또 잡아가니까, [시어머니가] 원체 무식한 어른이라, 겁이 났지, “아이고, 요 노릇이라, 요 노릇이라,” 발만 굴렀지. 마음씨는 막 좋은 어른.

시어머니는 여기서(화순리에서) 사람 죽는 걸 보고 [나를] 데려갔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죽는 거 보고. 고 순경(고씨 성을 가진 순경계급의 경찰)인가 하는 사람네 식구가 죽었는데, 죽으니까, “광광,” 스물아홉을 하루 저녁에 다… 한 사람 살아나,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다시 광 쏘아버렸다고 말하데. 그거 보고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가게, 가게” 한 거지. 그래서 식구가 다 [제주시로] 가버린 거지. “너만 내버려두면 어떡하느냐, 가게, 가게.” 그래서 데려갔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덕수로 내려가고, 우리 시어머니네

는 화순으로 내려가고. 덕수에서 어머니와 살았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걸. 같이 갔다가, 이거 참, 나같은 사람은 진짜 억울하지. 세상에 원, 이토록 억울...

[취조 받을 때 남편이 순경이라는 이야기를] 말하지 안했지. 순경인 줄 아니까. 다 아니까. 그때에 우리 마을 동광 사람들이 순경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경위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 취조도 받지 않고. 아이고, 그것도(남편이 순경이라는 것도) 말하지 못하게, 원. 그 사람(남편)도 잡아다가 죽여 버린다면서. 당초 그런 소리 안했지.

한 스무날 더 살았을걸. 거기 아주 좁은 곳에 이렇게 앉아서. 하루 한 끼 밥 주면 먹고, 안주면 안 먹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젠 나가라고 하니까, 손 한쪽을 이렇게 모두 엮어서 그냥 차에 모두 실어. 나가보니 군정재판이라고 하데. 그냥 민사(일반재판)도 아니고 군정이여, 군정. 민사는 조금씩도 받고 높게도 받고 하지만. 이걸 딱 일년이다 하면 일년, 딱. 이년이다 하면 이년, 탁. 두 번 말도 못하게 하고. 그래도 이제는 재판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억울하다고도 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런 식이 영 아니었지.

뭐 옛날에는 변호사가 뭔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데리고 가니까... 누구 증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증인도 없고 나 혼자만. 시누이고 시어명네고 그 집의 식구 아무도 [없었고]. 우리 식구도 없고. 나 혼자만. 그냥 모두 창고 같은 곳에 얹혀놓고, 군복 입은 사람이 탁탁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는 몇 년, 아무개는 몇 년,” 탁탁 하였지. 그 다음에 다시 감방으로 밀어넣는 거라.

지금 같으면 억울한 말이라도 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답도 하지 않고. 무슨 죄라 하는 말도 듣지 못하고. 취조 받은 후 조서를 어떻게 꾸렸는지, 나도 어리고, 분수도 모르고, 천지가 캄캄하니 몰랐는데, 최하가 1년. 최하 짧은 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까지 딱딱 때린. 몇 명이 앉았는지도 모르고. 1년짜리는 맨 끝에 앉았지. 이 사람 1년, 이 사람 1년, 아무개 1년, 1년, 1년, 다 부르고. 다음 차례에는 5년짜리가 다음에 앉았고, 또 5년 다음엔 10년...

한 며칠... 한 스무날 넘게 있었으니까, 설날, 그 눈이 많이 올 때였으니까. 설날 초에 어둑어둑 할 때, 모두 밖으로 내몰아 줄줄이 배 위로. 배에 모두 실으니까, 거기(배 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틀림 없이 가다가 배에서 내려버릴 거, 그냥 가다가 배 아래로 빠뜨린다, 빠뜨린다” 수군거렸지. 한참 가다가 배에서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뒷날 아침 어슴푸레 밝아서 보니까, 목포에. 목포라고 해서 [알았지]. 목포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나 생각했는데, 차에 모두 실었지. 짐차 같은 거였는데. 전주를 갔습니다. 어둡도록 전주에 갔지.

그렇게 형무소에 들어갔지. 제주도에서는 일년 받은 사람들, 서른 명은 죽히 갔는데. 전주 [형무소에] 5년 받은 동광 아이도 있었는데, 우리와 같이 재판 받았습시다. 3년 2개월 되니까 풀어줬다고 합디다. 여기 와서 살림 살아, 아들은 다섯이고 딸 하나 낳고 모슬포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매에 오래 못사는 거지. 그렇게 아파. 얼마나 병신 되겠습니까? 두드려 맞아 병신 되었지. 제일 아픈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은 채로 이렇게 매달아버리니까, 밑에서 의자를 딱 빼면, 제일 아픈 곳이 (어깨죽지를 가리키며) 여기 벌어지는 게 제일 아파. 똥글똥글 매달아서 죽어가면 풀어줬다고 다시 매달고. 깜빡깜빡하면 물을 부어 살려놓고. 뜨거운 물은 아니지만, 물을 부어 살아나면 또 하고(매달고). 아이고, 참,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전주에서 다섯 달 살았지. 거기서 3월까지, 4월쯤일 거라. 그런데 [형무소가] 만원이 되어,

어디 내란죄(1948년 10월에 시작된 여순사건), 내란죄 하면서 모두 전주에 수감되니까, 그 때문에 아주 만원이 되었어. 완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 왜 왔냐고 하니, 자기네는 제주도 보다 더 큰 일 났다고.

[전주형무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앉지도 못하니까, 이제 [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대전에. 대전에서 하룻밤 지내고, 다음에 경상북도 안동에 가서 살았지. 안동[형무소]로 가니까 아주 넓고. 안동에서는 낮에는 농장에 데려 갔지요. 농장에 가서 김을 매고. 쉬는 날에는 버선도 만들고. 나와서 일을 할 때 무슨 포승인가를 채우지도 안하고 배 닦은 것을 타고 건너가서, 능금도 따고 배꽃도 따고, 밭에서 김도 매고. 또 어떤 때에는 옷을 마름질해서 손으로 다 바느질해서 죄수옷도 만들고. 거기선 쉬어보지 못했지.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좋았지. 어두워지면 돌아가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음력 시월이 되니까, 차비를 주어서 보내주대. 딱 날로 열 달이라고 합디다. 화순에 와서 신고를 했지.

3) 신랑이 각시를 새로 얻어서 살다

[내 나이] 스물에, 음력으로 삼월 열여덟 날에 결혼을 했지. 성님(언니)은 일본 가서 없고. [우리집] 동기간이라곤 [우리] 형제(자매)만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위를 아주 아들로 생각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서귀포 실습학교 알지요? 그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는 웃드르(윗마을)에 살아도 집안이 조금 넉넉하게 살고, 그 집은 조금 곤란하게 살고 하니, 우리 아버지가 다 돈 대며 공부 시켜놓고 했는데... 나보다 두 살이 어렸습디다. 올해 봄에 죽었다고 합디다. 나보다 어려도 죽은 거지. 아파서 죽었다고 합디다. 술을 많이 마셔서. 속이 상해서 그렇게 술만 먹고, “나 때문에 [네가](강정순 할머니가)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잘못된 걸 어떻게 하냐” 말합디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은 열여덟이고, 나는 스물인데. 실습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왜정 때에 군대에 갔지요. 음력 3월에 갔다가 8월에 해방이 되어 돌아왔지. 보름날 해방됐으니까, 열엿새날 왔지. 왜 왔나 했지, 해방된 줄 몰랐으니까. 이제는 방송도 하지만, 여기는 촌이고, 어느 시절에 [해방된 줄 알겠나]. 시아버지는 그 여름에 [신랑이] 군인 가버렸을 때 돌아가셨습디다. 오월 초하룻날 돌아가셔서, [신랑이] 없을 때 영장 치르고(장사를 지내고).

[신랑] 동기간이 다섯인데, 시어머니가 앞눈이 어두운 어른입디다게. 살림살이를 그렇게 꾸려도, [신랑이 집에] 오면 고맙다는 소리 한번이라도 들어질까 해서 완전-히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게 아닙디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옛날 과거 얘기를 할테니 들어보라, 제발 지 서방 공부시키는 걸랑 하지 말라고 말하지.

[신랑이 돌아와서] 그해 겨울철에 순경 [시험에] 합격했지. 시험을 봐서 순경이 된 거지. 시험 봐서 붙으니까 정드르에 가서 살았지, 그 제주시 비행장에. 순경하면서 [작은] 각시(첩)랑 살아, [우리] 집에 살지도 안했지. [각시랑 사는 줄] 당채 몰랐지요. 옛날이니까 걸어다닐 때 아닙니까? 걸어다니거나 남의 차를 빌어다(얻어 타고) 오고가도, 잠도 [우리집에서] 안자고. 그곳에서 살면서 [집에 잠시] 들러도 별 관심 없고, 가도 별 관심 없고... 시어머니만 갔다 왔다 했지. 어떻게 사나 했는데, 각시를 얻어 얘기를 낳은 후에야 [제주시에서 각시랑 사는 줄] 알았지. 그 아이가 세 살 되었을 때 이 4·3 사건이 일어났지.

갓 스물에 시집가서 스물다섯이 되도록 아기가 없다고 하면서, [신랑이] 각시를 새로 얻어서 살았습디다. 각시가 딸을 낳고, 세 살이 되어 데려오니까. 이제는 이런 옷이랑 많이 있지만... [내가 그 딸에게] 명절날에 새옷을 입혀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나 진짜 고생했

습니다.

나는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남편의 첩)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뒤편으로 아이 하나 주면, 내가 장사를 하면서 애를 키우고, 데리고 살고, 자기네는 가족으로 시에 살고, [나는 나대로] 아무데서나 살면 살지 했는데... 이 4·3 사건이 나는 거라.

신랑 따라 시에 간다고 갔지. [첩이] 아기도 낳고 사니... 큰각시가, 나가, 첩이 되어버렸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혼인신고인지 뭔지 할 생각도 못했지. 이제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기 전부터 혼인신고도 하고, 오래 살아가면 이런 거 다 알게 되는데. 그땐 혼인신고인지 뭔지, 그저 한번 [시집] 가면 그냥 [시]부모 밑에 있는 것인가 생각했지. 난 [신랑] 얼굴도 못보고,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들 셋하고, 시동생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모두 어리니까, 귀찮아서 [나를] 잡혀 들어가게 한 거지. 하나라도 잡혀 들어가게 하자고 한 거지. 오죽 귀찮은 일이라구.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 하나 면회 갈 일도 없었지.

[첩이]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거라. [내가] 자기네 것(남편) 뺏어 살까봐... 자기네(남편의 첩) 언니의 신랑은 경위이고, 그래서 들어간 거지. 그럴지 않고 여기서 살았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병신도 안됐을텐데... 밤이 되면, (장만지를 가리키며) 여기로 이렇게 갈라져, 이쪽 살은 완전히 죽어버렸어.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아픈면 신경통 약 먹고, 파스 붙이고... 이제는 꿈쩍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 집이, 내가 간 집(첩)의 성(언니)의 서방이 들여보내긴 했어도, 들여보내긴 했어도 원 아무 죄도 없으니까. 그때 한번 취조 받았지. 전날 많이 잠아가니까, 뒷날 놓아주었다가, 다시 잡아간 거지. 다시 잡아가선 물어보지도 않고, 스무날 너머 감방에서 살았지.

그런데 [그때에는 누가 밀고를 했는지] 잘 몰랐었지. 나중에 이곳에 오니까, 시에서 사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라. 그 집[남편의 첩]에서 손가락질 해 잡혀갔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며. 나와 같이 산 시앗의 형님의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디다. [지금은] 그 사람네 다 죽어 없다고 합디다. 그보다 더하여 산에 가서 살던 사람도 아무 일 없었는데, 가만히 시부모 모시고 살던 사람을... 그냥 살면 자기(첩)가 못살까 봐 그렇게 한 거 아닐까, 그런가 보다 생각한 것이지. 그렇게 된 거지.

첩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그렇게 다 하는 거지, 다 그러려니 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런 말 자세히 이야기해봤자 이제는 다 갈려지고, 죽은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 말이 그 말이라, 고생한 이야기.

4) 내가 애기 낳고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내가 와보니까(안동형무소에서 나와 제주에 오니까), 친정어머니가 여기에(서광리) 함바집 만들어 살고 있대. 전부 성을 두르고, 저건 북문, 요건 동문, 요건 남문, 저 서쪽엔 서문. [문마다] 보초를 쳤지. 동광 사람하고 서[광]리 사람하고 다 여기 모두 모여 살았지. [함바집] 몇 집 지어 한 칸, 한 칸씩 살았지. 열 식구고 스무 식구고 한 칸에.

어머니한테 와서도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못했지. 추워지면 발이 이렇게 죽어버려서. 지금처럼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라, 물을 저다 먹었는데, 난 물도 한번 저보지 못했지. 성님이며 어머니가 물을 저다가 주었지. 아무래도 이쪽(척추 및 엉덩이)으로 취조 받은 게 이쪽(발)으로 내려간 것같애.

내가 나와 보니, 시댁 식구들도 뽀뽀이 흠어져 살고 있대. 내가 뭐하러 [신랑을] 만나러 갑니까? 일년 가 [감옥에서] 살고 난 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할 때, [신랑이] 찾아

왔습니다. 아는 어른이 우리 신랑 되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애매하게 남을 집어넣더니, 잘 해먹었다”말했지. 신랑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사는 데 와서, 죄지을 짓을 했다고. 자기 믿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다 죄지을 짓을 했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게. 난 애기가 두 명이나 있고, 또 애기를 배었으니, 이제는 너랑은 못산다. 각시가 약착같고 너무 독하니까, 널 만나면 너가 또 고생할 것같고.” 그러니까 내 맘에 드는 곳으로 시집가래 합디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살다 이 집의 하루방(남편)한테 납치되어 이제껏 살았지. 애기 낳고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난 시월 달에 여기 우리집에 와서, 정월이 다 오도록 하루를 거르지 않고 밭에 가서 일했지. 어머니랑 성님이랑 조케들이랑. 하루 저녁은 새 시누이가, 저 동광에 살 때부터 친구였지, “성님, 우리집에 오세요. 우리집에 가 조금 놀시다.” 아무래도 내가 멍청이 짓을 했지. 그렇게 말하니까, 몸빼에, 그때에는 몸빼 위에다 치마를 입었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냥 가지 마라. 치마라도 입어 가라, 입어 가라.” “치마 안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요새 유행 아닙니까?”

아니, 가보니까, [나를] 잡아다가 잔치하는 것을 몰랐지. 아이고, 이제 가도 오도 못하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 앉아, 함바집에 앉아 밥도 먹고 그러고 있는 거라. 그날 저녁, 순경들이 보초서고 있으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멀지도 않는데 집에도 못가지. 뒷날 아침, 어머니가 와서, “그냥 살아라. 너 먼저 신랑 만나려고 하면, 너 병신 되고, 나도 너 때문에 늘상 속상하고…” “아이고, 강패라고 합니다, 강패라고 술 먹으면 강패가 된다고 합니다.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각서를 쓰더라구. 절대 술 먹지 않겠다고. 첫딸 낳을 때까지는 술을 먹지 않대. 딸이 커가니까, 먹던 술을 안 먹겠어? 별 성질 다 부렸지.

그래도 애들 네 명, 다섯 명 낳아 살다보니… (울먹이면서) 내가 아기 못 낳는다고, 그 집에서 핑계에 내몰아서 징역 가서 살게 하고, 한 일년 가까이 살고. 그러니 이 애기들 낳은 걸, 남편이랑 못살아도 이 애기들 고생시키지 말자고, 열심히 일했지.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아기 아버지(두번째 남편)도 4·3 무서워서 육지에 가서 살다가 여기(지금 살고 있는 집) 위쪽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시아주버니가 군인이니까 살아났습니다. 내가 [시집] 오니까, 내가 다섯번째 온 사람입니다. 내가 다섯번째로 오도록 우리집 딸기아방도 아이가 없고, 나도 없고… 같은 처지였는데, 아기들이 생겼지. 장가도 두 번 가고 각시도 두 번 만나도 아기도 없고. 아기가 없으면 가버리고 가버리고 해서.

나하고는 [같이 산] 뒷해에 났는데. 스물여섯에 정월 열여드렛날 시집갔는데, 그 뒷해에 구월 열이렛날 딸 낳았지. 딸이라도 얼마나 기쁜지. [주위에서 남편보고] 고자라고도 했었다고 하는데, 여자를 다섯번째로 들일 때까지 아기가 없으니까 고자라고. 그래서 [부부는] 다 맞아야 사는 거예요, 다 맞아야. 혼인신고도 우리 딸이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못해서 [딸을 호적에] 못 올렸다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딸의 나이가 4살이 줄어졌지. 큰아들도 4살 줄어들고.

여기(친정어머니 집에) 오니까, 중매도 들어오고 합디다.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나 살 걸로 생각을 안했는데. 살림 살 생각을 조금도 안했는데. 다들 모여들어서 밤중에 와서 푸대 휘 하듯이 데려가서, [살림을] 시작했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살았습디다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땅도 한 만평 있습니다. 이젠 사는 것은 편안합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런 곳(다리와 발)이 들어가니까 아파.

이 다리가 이제는 못쓰게 됐지. 걸지를 못해. 이 양말 벗고는 밤에 잠도 못자고 이젠 이

다리는) 죽어버렸어(피가 통하지 않아). (양팔을 가리키며) 이거 신은 채 밭에도 자고, 여름에도 이거 신어야 자고, 신어야 나다니고.

그때부터 그랬어. 우리집 딸을 [내가] 스물일곱에 나니까, [그때부터] 막 이거 걷지 못해. 몸살만 하면, 손발이 다 죽어버리고. 누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막 땀을 흠뻑 내고 살아나면... 우리집 애들 아빠가 서른하나에 [내가] 여기 [시집] 왔는데... 그 다음번엔 애를 낳아도 노루 머리를 먹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어. 막둥이 딸 낳도록, 다섯을 낳도록 아프지 않았는데... 그 후론 그런 거(노루) 먹지 않아서 또 아팠지.

이 집에 [돈이] 없을 때 와서, 돈도 많이 벌었지요. 어떻게 어떻게 기회가 좋아 돈이 벌여 집디다, 살라고 하니깐. 없는 집에 와서, 아이들 촌 학교라도 다 보내고.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딸도 여기서는 우리만 화순까지 걸어 다니면서 중학교를 보냈지요. [딸을]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집 아방이 아기들을 공부시키려고 했지. 우리 시아버지가 한문 서당 훈장으로 있었으면서도, [남편이] 학교에 간다고 해도, 돈이 없는 걸 시켜지느냐 하면서 안 시켜줘서, 자기가 멍청이가 됐다고 하면서. 공부하여 [육지에] 올라간다면, 밭을 팔아서라도 시킨다고 했지.

그래서 큰아들은 4년제 [대학에] 시험보고, 교육대 시험도 보고. 교대 시험에 붙었지.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교대에 갔지. 아이고, [큰아들] 막 달랬지. 아들이 육지로 공부하러 가면 돈도 없고, 교대 졸업하고 돈 벌어서 우리 [애들]도 공부시켜 우리도 살려주고 하라고 막 달랬지. 그래서 교대를 나왔지. 교대 나와 삼월 초하룻날 졸업하니깐, 이튿날 불러가대. 선생질 하라고 불러가대. 그래 이제껏 추자도도 가서 살고, 어디도 가 살고. 작년에 나 병원에 있을 때, 서른 닷새 교육받고 시험 봐서 [교감 승진에] 두 사람 합격했는데, 우리집 아들도 합격했지. 그래서 아직은 적응하느라 저렇게 바쁘지.

5) 그저 시집 잘못 간 탓

그래서 내 생각엔 그저 시집 잘못 간 탓. 대체 여자가 무슨 일 했다고 그런 곳(형무소)에 갑니까? 시집 잘못 간 탓. (비교적 긴 침묵)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옛날 시아버지와 친구하여 다니면서, [시아버지가] “저 딸이랑 나 줘서, 나 줘서” 하니깐. 그때부터 꼭 그 사람한테 시집 보내겠다고. 내가 왜 꼭 그 사람한테 시집보내려고 하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그 사위를 아들 삼으려 한다는 거라. 아이고. (비교적 긴 침묵) 그러니까 부모말만 듣다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돼버린 거.

그때에 [형무소에서 집에] 오니까, 동네사람들이 다 “너는 억울하다,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니깐,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 시집가서 이렇게 되었나, [생각]했을 뿐이지. [다시 시집] 와서는 애기들 줄줄이 낳고 사니까, 새마음 먹고 살았지요. 억울한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내 말은 원, 할 말은 그것뿐이지. 옛날 과거의 말, 억울한 말,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있어? 그래도 억울하다는 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때는, [형무소에서] 갓 나왔을 때에는, 언제 또 와서 불러다가 뭐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었지. 그랬는데 하나도 물어보는 거 없고, 불러가지도 않고. 자기네가 잘못된 모양인지 일체 그런 일은 없었어. 요전에도 [당신 네들이](면담자가) 오고, 오늘도 이거 두번째 오고,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억울한 거 한번 말이라도 해봐... [그러니까].

2. 텍스트 만들기4)

지금까지 제시한 강정순 할머니의 생애사 텍스트는 연구자(필자)가 두차례에 걸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1차 면담은 2001년 11월 21일 할머니의 집에서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 ‘육지’ 출신의 남성 연구자와 제주도에서 태어난 여성인 제주4·3연구소 간사, 그리고 역시 제주도에서 태어난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남성)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1차 면담 때 구술된 이야기를 문자화한 것을 읽어본 후인 같은 해 12월 7일, 1차 면담 때 참여한 연구소 간사와 함께 연구자는 할머니의 집에서 2차 면담을 하였다.

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된 일차적인 목적은 연구자가 관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제주4·3연구소에서 4·3으로 인해 ‘수형’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집(제주4·3연구소 2002)을 출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언집의 목적은 당시 ‘수형인’들이 4·3의 와중에서 영문도 모른 채 검거되어 고문을 당하고, 죄목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불법적인’ 군법회의를 거쳐 수형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려는 것이었다. 제주4·3연구소에서 이러한 증언집을 출간한 때는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후 2000년 1월에 제정·공포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신고가 이미 이루어졌고,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수집 및 증언채록이 한창 진행중이었던 때였다. 따라서 연구소에서 증언집을 출간한 목적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차후 희생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상보고서가 채택될 때 수형인들도 ‘희생자’라는 것을 4·3의 ‘진실’ 하나로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인 2000년 12월 20일에 이미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사원 2명(제주출신의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할머니의 증언을 채록하였다. 할머니는 그들이 와서 증언채록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안동 형무소에서 나와] 여기 와서도 누가 오라 가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언젠가 여자 한 사람하고 남자 어른, 둘이 와서 사진 찍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다 되었나 했는데, 어제, 그제였나? 한번 찾아뵙겠다고 해서, 오라고 했지요. 난 어디 안가는 사람이기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1년 전에 할머니를 찾아와 4·3 때의 증언을 채록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의 1차 면담도 할머니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1차 면담을 하기 전에 문자화된 이 자료를 입수하였다. 작성기획단의 조사원이 정리한 증언 텍스트는 할머니가 겪은 4·3만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물론 정리된 텍스트가 면담 당시 질문과 대답을 한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제주4·3연구소에서 연구자가 팀장이 되어 연구자를 포함한 총 7명의 채록자가 10명의 증언을 담은 증언집을 만들 때, 작성기획단의 조사원들이 했던 것 같은 단순한 증언채록이 아니라 증언자들을 역사의 주체로 내세울 수 있도록 4·3의 전후 과정이 구술자의 전체의 삶속에서, 그리고 구술자의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를 제외하고 증언집을 만든 다른 채록자들이나 작성기획단의 조사원들은 4·3 관련 증언채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구술자료의 수집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연구자의 1차 면담 때 동행한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도 연구자의 면담과정을 배우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한 것이었지만, 강정순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을 즉각적으로 물어보았다. 따

라서 되도록 구술자 스스로 털어놓는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연구자로서는 2차 면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1차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 중 연구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대목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2차 면담을 하였다.

강정순 할머니와의 1차 면담에서는 면담 약속을 한 제주4·3연구소의 간사가 면담의 목적을 4·3 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기에, 연구자가 4·3 당시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전에 할머니가 먼저 4·3에 대한 이야기 보파리를 풀어놓았다. 2차 면담 때에는 우리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이미 동네 할머니가 놀러와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내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우리가 두번째로 찾아가자 강정순 할머니는 “다시 빗하러 들으러 왔어? 무슨 말을 할까?”라고 첫마디를 던졌다. “살아온 얘기, 기억나는 대로 해주세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 해봐야, 그때 얘기한 그것뿐이지, 뭐 더 할말이 있나? 고생한 거, 처음에 잡혀가서 고생한 거. 경찰이 잡아가서,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잡아갔던 그 때 취조 받았습시다. 두번째 갈 때에는 취조를 받지 않았습시다. 그때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알 수 있습니까? 기억도 나지 않고 너무 오래되어서… 오십 몇 년[전]일 겁니다. 53년 [전]인가? 몇 년[전]인가 잊어먹었는데, [여기] 와서 살면서 막 악착같이 얘기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일하다 보니까.”

그러나 강정순 할머니는 4·3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는 1차 면담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물다섯에 4·3 사건이 일어났는데”로 말문을 열었다. 몇 년전 일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이야기할 당시(2001년)로부터 정확히 53년 전(1948년)에 4·3사건은 일어났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1차 면담 때 4·3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들을 비롯한 자식들 사랑과 꼭 닮았다.

두차례의 면담이 각각 시작될 때의 이야기처럼 할머니가 두차례의 면담에서 털어놓은 이야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앞에서 제시한 강정순 할머니의 생애사 텍스트는 같은 상황에 대한 1차와 2차 면담 때의 이야기 중에서 정보가 더 자세한 것을 택하여 만들었고, 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가지 이야기를 모두 포함하였다. 면담 상황에서 구술된 이야기를 문자화된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두차례의 면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의 의미와 서로 다른 이야기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구술자라고 하더라도 면담자에 따라 구술자료의 판본은 달라진다. 면담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단지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술자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두차례에 걸쳐 행한 면담 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주4·3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사원의 텍스트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같은 구술자를 같은 면담자가 면담을 해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구술자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기억해내고 기억난 것 중에서도 어떤 것만을 선택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면담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화의 과정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었다. 구술된 이야기의 구조나 순서를 그대로 문자화하여 텍스트가 되었을 때에는 구술된 이야기와 문자화된 텍스트의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가 다르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연구자가 이미 한번 텍스트로 만들어 발표하였다(유철인 2002).5) 이 때에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생애사로 읽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특정 사건과 경험에 대한 증언을 채록한다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 나온 것이었다. 증언은 구술사의 원자료를 제공한 개인보다는 사건의 성격, 사건의 진행과

정, 사건의 원인과 결과 등에 초점을 더 맞춘 것이다(Titon 1980: 291). 이에 비해 한 개인의 지나온 삶을 자신의 딸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기록인 생애사는 특정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증언을 종종 포함하지만 증언과는 달리 한 개인의 삶 자체에 초점을 둔다(유철인 200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술된 경험을 생애사 연구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구술자의 주체성(subjectivity)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3. 텍스트 읽기

1) 경험과 주체성

(1) 스물다섯 살과 여기

강정순 할머니의 기억에 ‘스물다섯 살’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가 4·3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기 전에 큰 아들 자랑을 하면서, “내가 스물다섯에 이곳(시집)에 와서 고생하면서 낳은 애기들이 이렇게 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첫딸을 낳 이야기를 할 때에는 스물여섯에 시집을 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스물여섯에 정월 열여드렛날 시집갔는데, 그 뒷해에 구월 열이렛날 딸 낳았지.” 이 때에는 할머니의 나이뿐만 아니라 시집간 날과 딸을 낳 날까지 밝혔다.

할머니에게 스물다섯 살은 곧 4·3과 관련된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할머니는 두차례 면담 때마다 “스물다섯에 4·3 사건이 일어났는데”라면서 4·3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4·3 사건이 일어나고 친정아버지가 죽었을 때 할머니의 실제 나이는 스물넷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스물다섯 살의 할머니의 삶은 어떠했는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스물다섯 살의 할머니의 삶을 재구성해보자. 할머니는 스물다섯 살이 되는 음력 설날을 전주형무소에서 맞는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석방되어, 서광리의 전락촌으로 돌아와 친정식구들과 함께 살았다.⁶⁾ 결국 형무소의 수형생활 10개월과 전락촌에서 친정식구와 함께 산 2개월이 할머니의 스물다섯 살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기억 속에 4·3으로 인해 친정아버지가 죽고(스물네 살 된 해 음력 10월), 제주시에서 잡혀가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언도받아 수형생활을 하고(스물네 살 된 해 음력 11월부터 스물다섯 살 된 해 음력 10월까지), 석방된 후 두번째 남편을 만나 새살림을 시작한다(스물여섯 살 된 해 음력 1월) 것은 할머니가 스물다섯 살 때라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시간’인 것이다. 할머니의 스물다섯 살 시절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시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정작 스물다섯 살이던 시절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이 사건시간 속에 들어간 대목은 “갓 스물에 시집가서 스물다섯이 되도록 아기가 없다고 하면서, [신랑이] 각시를 새로 얻어서 살았습디다”라는 대목이다. 그러나 남편이 경찰이 되어 제주시에서 근무하게 된 때 할머니의 나이는 스물한 살이었으며, 첩이 아이를 낳 때 혹은 남편이 첩을 얻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할머니의 나이는 스물두 살이었다.⁷⁾ 그러나 스물다섯 살이 되도록 할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남편이 첩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첩의 존재 때문에 할머니가 억울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고,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첩을 얻었다고 믿고 있기에, 첩에 대한 이야기도 스물다섯 살이라는 사건시간으로 들어온 것이다.

스물다섯 살이라는 사건시간과 함께 ‘여기’라는 장소가 4·3과 관련된 강정순 할머니의 기

역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여기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장소나 현재 살고 있는 장소를 종종 가리킨다. 고향이자 시집을 가서 살았던 동광리나 전락촌이 있었고 현재도 할머니가 살고 있는 서광리를 가리킬 때 할머니는 여기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시에 가서 그 고생을 했어.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여기는 그렇게 연락도 잘 안되고, 전화도 그렇게 없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몇 달만 살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텐데…”라는 이야기와 “[첩이]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거라. [내가] 자기네 것(남편) 뺏어 살까봐… 자기네(남편의 첩) 언니의 신랑은 경위이고, 그래서 들어간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살았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병신도 안됐을텐데…”라는 이야기에서 여기는 단순히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도화 작전의 와중에 소개했던 곳(화순리라는 해안가 마을)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할머니에게 여기는 할머니가 잡혀들어 갈 때 살았던 (제주)시와 대립되는 ‘안전한 곳’이다. 따라서 여기는 회한의 감정이 섞여있는 장소로 이야기되고 있다.

(2) 아이를 난 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구술자가 처음으로 말하는 몇 마디는 자신의 삶 전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유철인 1996, 1998; Luborsky 1988 참조). 강정순 할머니는 요즈음 계속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와 4·3 때 귀를 맞아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부터 하였다. 몸이 할머니의 경험과 주체성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야기 내내 계속된다.⁸⁾ 할머니의 경험에서 몸은 4·3 때문에 “병신”이 되어버린 몸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줄 알다가 ‘아이를 난 몸을 의미한다.

취조 받을 때 고문을 받아 병신이 되었다는 할머니의 해석은 이야기할 당시 일흔일곱이라는 나이와 스물일곱에 첫딸을 낳기 시작하여 서른여덟에 막내딸을 낳을 때까지 5남매를 난 몸이라는 사실과 뒤섞인다. 취조를 받을 때의 이야기에서는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귀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양팔을 등 뒤로 각지를 끼우고 천장에 달아맨 뒤 밑에서 의자를 탁 빼어버렸다는 이야기와 궁둥이와 척추 쪽을 때렸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고문의 결과, 오랫동안 어깨가 아프고, 다리(허벅지와 장딴지)와 발이 쭈셔 잘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같이 형무소에 갇던 여자도 석방된 후 5남 1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는데도, 할머니는 “매에 오래 못사는 거지”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강정순 할머니는 몸이 아픈 것이 늙음과 출산과 관련된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이젠 사는 것은 편안합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런 곳(다리와 발)이 늙어가니까 아파. (중략) 그때부터 그랬어. 우리집 딸을 [내가] 스물일곱에 나니까, [그때부터] 막 이거 걷지 못해. 몸살만 하면, 손발이 다 죽어버리고. 누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막 땀을 흠뻑 내고 살아나면… (중략) 그 다음번엔 애를 낳아도 노루 머리를 먹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어. 막둥이 딸 낳도록, 다섯을 낳도록 아프지 않았는데… 그 후론 그런 거(노루) 먹지 않아서 또 아팠지.”

고문, 늙음, 출산 중 현재 아픈 몸의 원인이 어느 것인지, 또는 이 세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계속 아픈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의학적 사실과 상관없이, 늙어서 아픈 몸이 되었고 특히 첫애를 낳고 아프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4·3 때 취조를 받으면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머니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

실이 중요하다.

강정순 할머니는 여성의 몸이 출산의 도구라고 인식되던 시대에 성장하고 혼인을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애기(아들)를 못 나니까, [작은] 어멍 데려다가 다섯 살 난 계집아이 하나 [낳았지]”라는 친정아버지의 첩에 관한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4·3 사건과 할머니의 관계를 할머니 스스로가 설정한 부분에서도 첩과 ‘아이를 낳지 못한’ 몸이 등장한다. “나는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남편의 첩)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뒤편으로 아이 하나 주면 내가 장사를 하면서 애를 키우고, 데리고 살고, 자기네는 가족으로 시에 살고, [나는 나대로] 아무데서나 살면 살지 했는데… 이 4·3 사건이 나는 거라.”

아버지의 첩과 첫번째 남편의 첩이라는 존재가 실제로는 첫번째 남편과 같이 지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고 할머니가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들의 존재로 결국에는 ‘아이를 낳 몸’이라는 것이 할머니의 주체성의 중요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몸이 아이를 낳 몸이 되는 과정에는 4·3이 큰 고리를 이루고 있다. “그래도 애들 네 명, 다섯 명 낳아 살다보니… (울먹이면서) 내가 아기 못 낳는다고, 그 집에서 핑계내 내몰아서 징역 가서 살게 하고, 한 일년 가까이 살고. 그러니 이 애기들 낳은 걸, 남편이랑 못살아도 이 애기들 고생시키지 말자고, 열심히 일했지.” 남편과 살기 싫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산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제법 많은 수의 한국여성들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정순 할머니에게는 고문으로 병신이 된 몸이 아이를 낳 몸으로 변환되는 주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제 와서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5남매를 낳 후라 가능한 일인 듯싶다.

2)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과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

(1) 4·3 이야기의 수사법(rhetoric)

강정순 할머니의 4·3 이야기는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 때 죽은 친정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계속된 이른바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은 1948년 10월 17일에 발표된 9연대장 송요찬 소령의 포고문에서 읽을 수 있다. 포고문은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적성(敵性)지역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토벌작전을 전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⁹⁾ 초토화 작전을 위해 1948년 11월 중 중산간 마을사람들은 해안지역으로 내려가라는 소개령이 마을사람들에게 언제 확실하게 전달되었는지 마을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동광리의 경우에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구장이 “산사람”(무장대) 쪽이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에게 소개령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고향이자 시집을 가서 살았던 동광리에서는 1948년 11월 15일(음력 10월 15일)에 토벌대 군인들이 할머니의 친정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명을 죽였다. 다른 사람의 증언(강태권 1998: 80~82)이나 제민일보 4·3 취재반(1998: 251)의 기록에도 할머니의 친정아버지가 그때 죽은 것으로 나온다. 다음날 할머니는 어머니, 언니, 조카딸 2명, 그리고 “작은 어멍”(아버지의 첩)이 난 이복여동생과 함께 동흥에 있는 굴로 피난을 간다. 모두 여자들만 피난길에 나선 것이다. 아버지가 죽자 다음날 마을을 떠나 피난을 갔다는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형부가 그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작은 어멍(어머니)에 대한 생사

에 대해서도 1차 면담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사원들에게 할머니가 증언한 내용에는 피난가기 전에 작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마을에 불을 붙인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딸(의붓딸) 데려서 도망가 버리고 나는 고모님네 집 쪽에 가 앉아 있고. 우리집에 불을 붙이는데… 집집마다 불을 붙였다고 해서 돌아와 보니, 우리 작은 어미를 칼로 찔러버렸습디다. 폭도들이 와서. 목숨만 살아있어, 이불에 싸서 마당으로 모셔다 두었지. 폭도들이 무서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뒷집 사람보고 같이 들어달라고 해서 집 밖의 거리에 내놓았지. 그리고 이제 밭에 숨어 있다가, 뒷날 아침 가보니 작은 어미가 죽어버렸습디다. 우리 성님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삼으로 흙을 얹어놓고, 우리 성님 난 딸 두개하고, 우리 작은 어미가 난 딸하고 내려갔지.”

그러나 이때의 증언에서도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의 부인인지, 아버지의 첩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 연구자가 2차 면담을 할 때, 강정순 할머니는 친정 식구들이 덕수리에 갔다는 이야기 끝에 아버지의 첩인 작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죽게 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덕수에] 언니 식구, 딸(이복동생)도 하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애기(아들)를 못 나니까, [작은] 어미 데려다가 다섯 살 난 계집아이 하나 [낳았지].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도 걷지 못하는 어른이라, 집에 불 붙여버리니까 [작은 어머니도] 그냥 불붙을 건데. 바깥으로 꺼내서 그냥 이불을 씌워 묻었지.” 할머니가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사원들에게 증언한 내용을 읽고나서야 작은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면담 때의 위의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할머니가 이야기한 “작은 어미”가 아버지의 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사원들에게 증언한 내용에서 마을에 불을 붙인 사람들이 토벌대(군인이나 경찰)인지 무장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또한 작은 어머니를 칼로 찔른 사람들이 “폭도들”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누가 죽었는지 증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물론 4·3에 대한 이야기에서 ‘폭도’라고 하면 산에서 활동을 하던 ‘무장대’를 일컫지만,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할머니의 친정아버지를 비롯한 9명을 죽인 후 마을이 불에 탔다는 사실과 집이 불타는 와중에 할머니의 작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만을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군인들이 와서 마을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의 차원에서 무장대가 다시 마을에 들이닥쳤을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마을에 불을 붙인 사람과 작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강정순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제주사람들의 기억 속에 ‘누가 죽었다’는 사실이 ‘누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다.¹⁰⁾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화순리에서의 29명에 대한 집단총살은 1948년 12월 1일(음력 11월 1일) 해안가 마을로 내려온 서광리 마을사람들 중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이 안덕지서에 갇혀 있다가 불려나가 총살당한 사건(제민일보 4·3 취재반 1998: 261~263)을 말한다. 안덕면 화순리는 해안가 마을일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유일한 경찰지서인 안덕지서의 소재지였다. 이밖에 철도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주둔했고, 1948년 11월 말게부터는 각 마을에서 민간인을 차출해 구성한 특공대 1백여 명이 안덕국민학교에서 합숙하였다. 화순리는 명실상부한 토벌대 본부였다(제민일보 4·3 취재반 1998: 294).

할머니가 세차례의 면담(작성기획단 조사원의 면담과 연구자의 두차례 면담) 때마다 화순리에서 일어난 집단총살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4·3의 진행과정에서 그 사건이 중요하다고

할머니가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할머니에게는 그 사건 때 시누이의 남편이 죽으면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제주시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매번 그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할머니는 이야기 끝머리마다 남편이 첩과 살림을 하는 제주시 집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간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였다. 처음 피난 가서 살았던 화순리나 친정 식구들이 피난 간 덕수리에서 살았다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하지 않았고, “병신”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동광리가 중산간 마을이었기에 할머니가 살려면 해안가 마을로 내려와야 했지만, 어디에서 살았는지가 할머니의 운명을 바꾸어놓았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친정아버지와 시누이의 남편이 죽은 것은 세차례의 면담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형부가 언제 죽었는지는 한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첩인 작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죽은 다음날 마을을 떠난 가족(친정 식구)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가족과 친척 중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보다 친정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죽자 동광리를 떠났고, 시누이의 남편이 죽자 화순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4·3 경험에서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2) 경찰 가족과 ‘내란죄’

시어머니가 강정순 할머니에게 제주시로 같이 가자고 한 가장 큰 이유는 할머니의 남편이 당시 경찰이었기 때문이다. 경찰 가족은 안전하다고 시어머니는 믿었던 것이다. 남편이 경찰이었는데도 4·3과 관련하여 할머니가 잡혀가 취조를 받았기 때문에, 두차례 면담 때마다 할머니에게 취조 받을 때 남편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정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할머니는 두차례의 면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먼저 1차 면담에서 할머니가 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자.

“[취조 받을 때 남편이 순경이라는 이야기를] 말하지 안했지. 순경인 줄 아니까. 다 아니까. 그때에 우리 마을 동광 사람들이 순경이 여러 명 있었습시다. 그러니까, 그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경위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 취조도 받지 않고.”

두번째 잡혀 들어가서 취조를 받지 않았던 것이나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덕을 남편이 당시 경찰이었기 때문이라고 할머니는 믿고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2차 면담 때에는 남편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을 하였다. “아이고, 그것도(남편이 경찰이라는 것도) 말하지 못하게, 원. 그 사람(남편)도 잡아다가 죽여 버린다면서. 당초 그런 소리 안했지.”

누가 할머니에게 남편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작성기획단의 조사원들이 강정순 할머니의 증언을 채록할 때 분명하게 말하였다. “아이고, [남편이] 순경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 시어머니가 [남편이] 순경이라고 말하면 [남편도] 징역 간다고 합디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순경이라고 말하면… 너만 들어가지, 이제 그 사람 들어가면 되느냐. 아무래도 너 하나만 들어가 살고 있으면 뒷받침 해주게’ 했지. 그런데 뒷받침이고 뭐고, 원 [시어머니 얼굴] 한번 구경도 못했지. [시어머니가] 그 사람도 잡아다가 죽여 버릴 거라고 [말해서], 당초에 그런 말을 못했지.”

세차례의 면담 때 털어놓은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남편이 당시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취조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머니를 취조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취조할 때의 혐의 내용에 대한 할머니의 이야기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당시의 중요한 '진실' 한 가지가 드러난다.

취조할 때의 이야기에서 “[내가] 신랑을 죽이려고 산에 올라갔다고 하면서, 그 명분으로 때린 거지. 남편은 순경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남편 죽이려고, 올라갔다.’ 그런데 나는 산에 올라간 역사도 없고, 없었지”라는 대목이 나온다. 할머니의 남편이 첩을 데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인인 할머니로서는 남편을 죽일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취조한 사람들이 판단한 것으로 할머니가 이야기하고(또는 믿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취조한 사람들이 정말로 알았던지, 아니면 알고 있으리라고 할머니가 믿었던지 간에, 이 대목은 4·3의 와중에서도 경찰 가족은 안전하다는 시어머니의 믿음과는 달리 할머니의 남편이 경찰이기에 경찰(남편)의 반대편에 서면 무조건 ‘무장대’가 될 수 있다는 당시의 진실을 보여준다.

결국 강정순 할머니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내란죄’로 징역 1년형을 받게 된다. 정부문서 보관소에 보관중인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강정순 할머니의 기록을 보면, “직업: 농업, 성명: 강정순(여), 연령: 23, 본적지: 남군 안덕면 동광리,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년, 죄목: 형법 제77조 위반(범죄사실: 내란죄), 언도일자: 1948년 12월 28일, 복형장소: 전주”로 기록되어 있다. 제1회 군법회의는 초토화 작전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던 12월 3일부터 29일까지 14차에 걸쳐 열렸다(박찬식 2001: 19-20).¹¹⁾ 할머니는 13차 군법회의에 회부된 82명 중의 한 사람이었다.

강정순 할머니의 죄목은 ‘내란죄’였다. 할머니는 무장대인 산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쌀 한 되도 주지 않았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하였다: “산사람(무장대)한테 술이나 한 잔 주었나, 쌀이나 한 되 주었나, 준 역사가 없는데.” 그러나 작성기획단 조사원들에게 할머니가 증언한 내용에는 “그때는 [산사람들이] 쌀 주라고 하면, 못 견뎌서 안 주진 않았지. 시어머니네와 살면서, 쌀 주는 건 봤지. 그것 밖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가 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쌀 한 되도 ‘본인’이 직접 주지 않았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믿고 군법회의의 결과를 보면,¹²⁾ 중산간 마을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된 셈이다. 강정순 할머니의 ‘내란죄’에 대한 유죄 판정은 4·3 당시 중산간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두 산쪽 무장대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 후기

경험은 주체성(subjectivity)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경험이라는 것은 행동과 그에 따른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Bruner 1986)이기 때문이다. 경험한 것을 기억해낼 때, 또한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의미는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경험은 경험한 사람이 이미 해석한 것인 동시에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연구자)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Scott 1992: 37). 해석인류학(interpretive anthropology)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경험한 사람 자신이 해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Marcus and Fischer 1986: 26).

본 논문에서는 구술자가 4·3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구술자의 해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재)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강정순 할머니의 생애사 텍스트를 읽었다. 할머니는 자기가 겪은 4·3을 기본적으로 가족생활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할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4·3은 자신이 “병신”이 되어버린 사건이며, 그 과정에 얽혀있는 가족과 친척의 죽음, 그리고 혼인관계 등을 둘러싼 사건들이다.¹³⁾ 따라서 4·3의 와중에 자기에겐 닥친

일을 당시의 시국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시집 잘못 간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4·3은 할머니의 생애에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전기(轉機)였다. 할머니의 스물다섯 살이라는 사건시간 속의 4·3은 첫번째 결혼의 불임에서 두번째 결혼의 임신과 출산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할머니의 생애사는 아이를 낳지 못한 몸이 아이를 난 몸으로 변환되는 주체성을 보여준다.

할머니는 지나온 삶을 돌이킬 때마다 고문 탓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지만, 아프다는 이야기 끝에 아들 자랑과 살림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 들어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지만, 두번째 결혼생활에서 자식들을 낳고 열심히 살림을 일으키면서는 억울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할머니는 몸이 아플수록 고문과 감옥살이에서 겪은 고통보다 두번째 남편을 만나 살림을 일으키고 아이들을 잘 키워온 보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할머니의 생애사는 4·3의 폭력적 경험과 그에 따른 고통을 4·3 이후의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있게 만드는 자기창조의 기술과 주체성 확립의 전략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강정순 할머니와의 세차례 면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와 서로 다른 이야기의 의미를 구술자의 수사법(rhetoric)과 서사적 진실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면담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할머니의 인생경로에서 4·3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현재, 4·3 때 누가 죽었다는 사실보다는 가족과 친척 중 누가 죽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며, 그것보다도 누가 죽자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수사법이 구사되었다. 이는 다른 곳(최종적으로 제주시)에서 겪은 할머니의 고통이 컸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취조 받을 때의 이야기는 면담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할머니로서는 그때의 사실적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그때나 이야기를 하는 현재에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죽이려고 산에 올라가 산사람(무장대) 노릇을 했다는 혐의내용을 거짓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과는 당시의 ‘사실적 진실’로 기록되었다. 할머니는 남편을 죽이려고 산에 올라가기는커녕 무장대를 도와준 일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면담자에게 강조하다 보니 당시의 상황을 조금씩 다르게 기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이던지 무장대를 도와준 일이 없었다는 ‘서사적 진실’이 그 때를 경험한 할머니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애사의 연구자는 구술된 이야기를 듣는 청자이면서 동시에 편집된 생애사 텍스트의 화자의 입장에서 경계를 넘나들게 된다(김성례 2002: 57). 구술된 경험에서 구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은 특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된 경험이 구술자의 전체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구술자의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연구자가 보여줄 때 구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애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구술자와 연구자의 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생애사의 연구자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생애사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이 들어설 공간을 옆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태권

- 1998 “동광리: 무등이왓, 삼밭구석, 조수케,”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유적지 기행』, 서울: 학민사, pp.59~123.

김성례

- 2002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31~64.

김성례, 유철인, 김은실, 김창민, 고창훈, 김석준

- 2001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4(1):89~137.

박찬식

- 2001 “한국전쟁기 제주 4·3 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1(창간호):17~51, 제주4·3연구소.

양현아

- 2001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60:60~96, 한국사회사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제주4·3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편

- 1999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유철인

-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397~419.

- 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97~117.

- 2001 “구술된 기억으로서의 증언 채록과 해석,” 제20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 주최, <근·현대 사료의 이해와 수집·활용 방안> 학술회의(6월 8일, 국사편찬위원회)발표논문.

- 2002 “시집 잘못 간 죄가 내란죄?,” 제주4·3연구소 편,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pp.21~45.

- 2003 “제주 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구술자료의 수집과 해석,”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5월 30일-31일, 전남대) 발표논문.

윤택림

- 2001 “한국 근현대사 속의 농촌 여성의 삶과 역사 이해: 충남 서산 대동리의 여성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9:207~234.

제민일보 4·3 취재반

- 1997 『4·3은 말한다』, 제4권, 서울: 전예원.

- 1998 『4·3은 말한다』, 제5권, 서울: 전예원.

제주4·3연구소 편

-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 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유적지 기행』, 서울: 학민사.

Bruner, Edward

- 1986 "Experience and Its Expressions," in Victor Turner and Edward Bruner, (eds.), *The Anthropology of Experienc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3~30.
- Luborsky, Mark R.
- 1988 "Representation and Denial in Anthropology: A Critique of the 'Life History' as Practiced," Unpublished paper circulated at the 1988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Meetings, Washington, D.C., U.S.A.
- Marcus, George E. and Fischer, Michael M. J.
- 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An Experimental Moment in the Human Scienc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ott, Joan W.
- 1992 "'Experience'," in Judith Butler and Joan W. Scott, (eds.),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22 ~40.
- Titon, Jeff Todd
- 1980 "The Life Story,"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93:276 ~292.

K C I

<abstract>

<Key concepts>: experience as told, life history, subjectivity, narrative truth, Jeju April Third Uprising

Reading the Experience as Told:
A Life History of the Woman who Served the Sentence during Jeju April Third
Uprising

Yoo, Chul-In (Professor,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reads and (re)interprets the life history text of a seventy-seven-year-old woman who served the sentence for ten months during April Third Uprising in Jeju Island, focusing on how she interprets her experience during April Third Uprising and her whole life, and what her interpretations mean. During April Third Uprising, she was arrested and suspected of a guerrilla who intended to kill her husband, a policeman, because a concubine of her first husband informed against her. She was tortured during examination. According to so-called factual truth at that time, she was guilty. After serving the sentence, she married her second husband and had borne five children.

She interprets such suffering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her family life, and then imputes it to her first marriage. The April Third Uprising in the event-time of her age of twenty-five is the turning point in her whole life. The body that had borne children becomes the main part of her subjectivity. With her storytelling, she has created her self by emphasizing her efforts in raising her children very well and in making a good living, rather than simply complaining of her pain mainly from being tortured.

This paper also compares three kinds of her oral texts, with regard to the rhetoric of and the narrative truths revealed in them. Her story is reiterated the same in each interview that she left after someone among her family and relatives was killed during April Third Uprising. It is most important to her when and why she left for Jeju City where she was arrested. About the situation in which she was suspected of a guerrilla, however, she tells a somewhat different story in each interview. The differences in some details come partly from her rhetoric that she cannot help emphasizing that she did not help guerrillas in any way, needless to say that she was not a guerrilla. The narrative truth that she is innocent is the only truth for her.

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41-A00069). 구술자와 면담을 하고, 녹음된 말을 풀고, 제주말을 표준말로 바꾸는 데 도와준 제주4·3연구소의 이은영과 김진희에게 감사드리며, 구술자의 이전 증언 자료를 제공해 준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사원인 김은희와 장윤식에게도 감사드린다.

- 2) 민족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연구대상(subject)의 이름이나 마을 이름은 가명으로 바꾸지만, 본 논문의 구술자의 이야기는 제주4·3연구소(2002)에서 펴낸 증언집에 증언집 발간의 목적에 따라 이미 실명으로 발표되었던 것(유철인 2002)이기에 그대로 실명을 밝힌다. 증언집 발간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2. 텍스트 만들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 3) 생애사 텍스트와 직접 인용한 구술내용은 할머니가 말한 그대로를 되도록 살려서 문자화하였다. 텍스트와 인용문 중 ()는 몸짓과 표정을 묘사하거나 텍스트 진후 맥락을 상기시키는 간단한 해설을 하고자 할 때와 말의 정확한 의미를 덧붙이고자 할 때 사용하였고, []는 이야기 중 생략되었다고 생각한 말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였다. 텍스트 중 고딕체로 된 부분은 본 논문의 <3. 텍스트 읽기>에서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가리킨다. 텍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한 구술내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3. 텍스트 읽기>에서도 텍스트에 들어있는 부분은 고딕체로 표시하였다.
- 4) 본 논문의 초고는 구술된 경험의 1차적인 해석인 생애사 텍스트를 만드는 것과 2차적인 해석인 생애사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었다.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익명의 심사자 세 분이 초고를 읽고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을 끌어낸 후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일찍이 마쿠스와 피셔 (Marcus and Fischer 1986: 164)는 민족지적인 텍스트에 다중적인 목소리를 담으려는 인류학자들의 ‘실험’에서 담론과 대화를 재현하려는데 사로잡혀 때때로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사자들의 논평에 따라 본 논문에 <2. 텍스트 만들기>와 <4. 후기>가 새로 추가되었다. 구술자와 연구자의 대화로만 끝날 수 있었던 본 논문에 독자의 입장을 상기시켜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5) 해석의 틀이 달라지면 구술된 이야기를 문자화한 텍스트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생애사 텍스트와 이미 발표된 텍스트는 다르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사원이 정리한 증언 텍스트와 연구자가 이미 발표하였던 텍스트도 다르다. 두 텍스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유철인(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 6) 중산간 마을사람들이 전락촌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가 펴낸 책에 생생하게 나와 있다.
- 7) “각시를 얻어 애기를 낳은 후에야 [제주시에서 각시랑 사는 줄] 알았지. 그 아이가 세 살 되었을 때 이 4·3 사건이 일어났지”라는 이야기와 “각시가 딸을 낳고, 세 살이 되어 데려오니까”라는 이야기에서, 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첩이 난 아이가 세 살이 된 해 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때 할머니의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 8) 한국인 ‘구위안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생존자의 주체성을 재현하고자 했던 한국인 여성 사회학자의 연구(양현아 2001)에서는 생존자의 주체의 성격을 ‘정조라는 성규범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존자의 성적 주체성과 관련한 체험의 장으로서는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 9) 초도화 작전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4·3 취재반(1997: 340~392)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제주 4·3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제주

- 4·3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1999)와 김성래, 유철인, 김은실, 김창민, 고창훈, 김석준(2001)이 참고가 된다.
- 1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2003년 10월 15일에 공식으로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서도 ‘누가 죽었는지’보다 ‘누가 죽었는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진상보고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www.jeju43.go.kr) 자료실의 자료집에서 전문(全文)을 볼 수 있다.
- 11) 제1회 군법회의에서는 모든 피고인(871명)이 각각 죄과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 하였으나, 판정은 모든 피고인에게 ‘내란죄’(형법 제77조 위반)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정하였다. 1949년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1차에 걸쳐 열렸던 제2회 군법회의에서도 모든 피고인(1,659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과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 하였으나, 모든 피고인에게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방조의 죄 및 간첩죄’(국방경비법 제32·33조 위반)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박찬식 2001).
- 12) 구술자료는 사건과 경험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술자료에는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과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이 혼재되어 있다(김성래 2002: 52). 어떤 것을 기억하고 말한다는 것은 어차피 선택적이다. 구술자는 사건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그리고 감정을 부여한 상태로 이야기한다. 서사적 진실은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 속에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구술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거짓된 기록은 아니다.
- 13) 이는 농촌 할머니들에게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들의 의미란 그들의 가족들의 삶에 있어서 가족의 해체나 생존의 위기와 관계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충남 서산지역의 농촌여성들의 구술 생애사에 대한 한국인 여성 인류학자의 연구결과(윤택림 2001)와 비슷하다.